"소통행보 지속 추진"

최경식 남원시장, 2월 확대간부회의서… 적극행정 · 책임행정 주문

올 공모사업 발굴 · 내년 예산 확보 대응 · 특자도 남원 특례 발굴도

최경식 남원시장이 지난 24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지난주까지 추진했던 '2023 시정공감 열린대화'에 대해 언급, 지속적인 소통행보 추진 의지를 밝혔다.

최 시장은 "많은 시민들께서 '시정공감 열린대화'를 통해 다양한 의견 등을 제시해주시고 호응해주신 만큼 이에 부응하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3월부터는 각종 사회단체 등을 대상으로 더욱 생생한 소통행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시장은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열린대화에서 제기됐던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민원사항에 대해 가능한 빠른 시일 내 화답해주고 이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행정서비스 추진과 책임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그 일환에서 최 시장은 올해부터 23개 읍면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월별 시책 발굴'에 대해 더욱 매진해줄 것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 시장은 "행정의 수요가 미치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 시민들을 위해서는 정말 다채로운 시책이 필요하다"면서 "그런 상황을 행정에서 놓치지 않도록 다양한 관점에서 시책을 발굴해달라"고 제안했다.

한편 최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2023년 각종 공모사업 발굴 및 2024년 국가예산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도 주문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이 지난 24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지난주까지 추진했던 '2023 시정공감 열린대화'에 대해 언급, 지속적인 소통행보 추진 의지를 밝혔다.

원활한 추진을 위해 그는 부서장들에게 각 부처별 출장 추진 및 과제별 설득논리, 사업추진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 전략적인 행보 요청과 함께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각종 공모사업에 대해 정부기조 또는 도정 기조에 맞는 주도면밀한 계획수립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최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전북특별자치도법 제정에 따른 '남원시 특례 적극 발굴'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최 시장은 "남원민의 특례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부서별 다채로운 특례제도 발굴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지시했다.

이밖에도 최 시장은 오는 5월 25일부터 29일까지 치러질 제93회 춘향제 추진 방향에 대해 언급하며 시민참여의 중요성을 재강조했다.

최 시장은 "장구한 역사를 품은 춘향제가 5월에 개최된다"면서 "시민의 참여와 행정이 함께했을 때 비로소 제대로 된 축제, 성공한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만큼 온 시민이 함께하는 남다른 춘향제로 성공 개최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농촌 살리는 새로운 모델'

남원 사매유토피아 준공… 지역 학교 재학생 감소 극복 기대

남원시는 전라북도 최초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농촌지역의 인구유입을 촉진하고 시골 작은 학교의 재학생 감소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정주여건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공공임대주택 12호를 공급하는 사매유토피아 조성사업을 마무리하고 지난 24일 준공식을 가졌다.

이날 준공식에는 이순택 남원시 부시장 및 유관기관 관계자,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해 부푼 기대감과 훈훈한 덕담으로 모처럼 활기 넘치는 자리가 되었다.

시는 이번 사매유토피아(공공임대주택)준공에 따라 사매면에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공간이 마련돼 지역민 감소 및 사매면 소재 초, 중학교의 재학생 감소 현상을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사매 유토피아사업은 인구 소멸위기에 처한 농촌을 살리는 새로운 모델로 활용가치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남원시는 사업에 대한 효과성이나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살피고 활력 넘치는 우리지역 농촌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난 24일 남원시 사매면에 위치한 사매그린빌에서 사매유토피아 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 준공식이 열렸다.

남원시, 올 제1회 추경안 1조1025억 편성

민선8기 공약 · 민생안정 지원 따른 현안사업에 중점

올해 본예산 1조264억 대비 7.4% 증액… 시의회 제출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공약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에 따른 현안사업 편성을 위하여 1조1,000억원 규모의 2023년도 제1회 추경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지난 24일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남원시의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1,025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1조264억원보다 7.4% 늘어난 규모이다. 일반회계 1조 442억원으로 706억원(7.3%) 늘고, 특별회계 583억원으로 55억원(10.4%)이 늘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 43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7.6억원, △교육 분야 35억원, △문화체육 및 관광 분야 91억원, △환경 분야 48억원, △사회복지 분야 29억원, △농림 분야 113억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225억원, △교통 및 물류 분야 18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08억원, △기타 분야 6.4억원을 증액했다.

주요 반영 예산은 민선8기 핵심사업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내 사유지 매입 120억원 △드론 레저 스포츠 스타디움 건립 100억원 △UAM·드론 홍보전시관 조성부지 매입 64억원 △요천 통합하천 정비사업 25억원 △만인공원 문화재 조사용역 17억원 △함파우 아트밸리 1단계 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15억원 △천연물 화장품시험검사 임상센터 건립 11억원 △남원 옻칠 목공예 전시관 건립사업 2억원 △노인일자리 지원 12억원 △농업용 면세유 가격 안정지원 9.8억언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7.5억원 △저소득층 취약노인 긴급 난방비 2억원 등을 편성했다.

최경식 시장은 "이번 제1회 추경안은 민선8기 공약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하여 조기에 편성했다"라며 "10월에 개최하는 2023 남원 FAI 월드 드론 레이싱 챔피언십 대회 개최 등 남원의 미래 산업을 책임질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제1회 추경 예산은 3월 9일부터 개최되는 제25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돼 심의와 의결을 거쳐 3월 24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산림조합 위기탈출 적임자, 조합원들의 선택은?

보궐 맞불 두 후보 1년 만에 '재격돌'

오는 3월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 지난 22일 후보자 등록을 마친 후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한 가운데 임실군산림조합 수장을 뽑는 선거에 군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임실군산림조합이 수년째 적자를 기록할 만큼 조합의 재정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어 있어, 앞으로 4년간 조합을 이끌어갈 수장의 운영능력에 따라 매년 고질적인 자본잠식으로 큰 어려움에 빠져 있는 조합의 위기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실군산림조합의 2022년 결산 보고에 따르면 이 전회 누적손실금에 2022년 당기순손실금 또한 상당금액이 발생, 총 누적손실금액이 7억여 원에 달하는 등 조합의 적자운영이 회생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조합의 존폐위기감마저 느끼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하여 조합원들 부치기수는 출자금에 대한 배당도 없이 거의 반 토막 이상의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후보자들은 위기의 적자조합을 흑자조합으로 전환시키는 적임자로 자칭 강조하며 조합원들의 성향에 맞는 공약을 내세우는 등 양 후보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 가운데 3,057명 조합원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임실군산림조합장 선거는 재선을 노리는 문용운 현조합장과 지난 보궐선거에서 26표 근소한 차로 석패한 (전)임실군청산림과장을 역임한 정회석 후보가 재격돌한다.

문용운 조합장은 "보궐선거로 당선된 1년의 임기로는 건실한 조합으로 육성하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 이었다"며 "다시 한 번 기회를 준다면 임기 내 자본잠식을 완전히 해결 하겠다"고 밝혔다. 정회석 후보는 "위기에 빠진 조합을 살리기 위해서는 현 체계의 조합경영으로는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면서 "산림경영 행정전문가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불공정한 인사 및 조합경영진단을 꼼꼼히 파악해 조합경영 정상화를 이루고 3년 이내에 흑자로 전환시켜 우수조합으로 융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군, 2년 연속 합계출산율 '전국 2위'

통계청 2022년 출생 · 사망률 결과… 전북 3년째 1위 유지

교육 · 일자리 · 군부대 등 맞춤형 인구감소 대응 정책 영향

임실군이 심각한 저출산 위기 속에서 2년 연속 합계출산율 전국 2위를 기록, 아이 낳기 좋은 지역임을 재확인했다. 군에 따르면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출생·사망 통계 잠정결과'에 임실군의 합계출산율은 1.55명으로, 전남 영광(1.81명)에 이어 전국에서는 두 번째, 전북에서는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치인 0.78명과 도내 평균치인 0.82명의 2배에 가까운 높은 수치로 2년 연속 전국 2위, 전북에서는 3년 연속 1위로 최상위권을 기록했다.

이처럼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는 데는 임실군이 그동안 추진해 온 출산장려 및 교육정책과 함께 일자리 사업, 인구 유입을 위한 귀농·귀촌, 다문화, 군부대 지원정책 등 분야별 정책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군은 출산장려정책으로 첫째아 300만원, 둘째아와 셋째아 500만원, 넷째아 이상 8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 50만원과 16만원 상당의 출산 축하용품 지급,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비롯해 기저귀 구입비 지원, 임산부 이송 교통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산후건강관리비 등 20여 개의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또한 교육 인프라를 끌어올리기 위해 2018년부터 운영하고있는 임실봉황인재학당도 인구 유출 방지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매년 150명의 관내 중학생을 선발하여 방과 후 맞춤형 학습 운영으로 국어와 수학, 영어 과목을 집중 교육하고 있다.

특히 택시 조합과의 협약을 통한 안전한 등·하원 지원, 영양가 높은 급식 제공 등을 하며 자녀의 교육과 안전, 건강을 모두 책임지는 만능 교육시설로 자리매김했다.

35사단 등 군부대 지원 특수시책도 지역 출산율 유지를 견인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군은 외출 장병을 위한 수송차량 및 임실사랑상품권 지원, 군 간부 전입 장려금 지원, 영화관과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 이용 혜택 등 군부대와의 상생 협력에도 힘쓰고 있다.

여기에 1,000여명의 다문화가족을 위한 맞춤형 가족서비스 지원 등 다문화 활성화 정책도 빼놓을 수 없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임실군가족센터의 활발한 운영을 통한 부부·부모·가족 교육 및 방문교육 서비스 운영, 아이돌봄 지원사원 추진과 더불어 올해부터는 월 10만원의 다문화가족 육아지원금 지급 등을 시행하며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조기 정착 및 자립기반 마련에 힘쓰고 있다.

귀농·귀촌인에 대한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귀농 교육훈련비 지원, 주택 구입·신축 및 수리 지원사업, 소득사업 및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 등은 물론 임실읍과 청웅면에 운영 중인 귀농·귀촌 가족 체재형 실습농장 등 맞춤형 도시민 지원사업에도 힘을 쏟고 있다.

군은 올해 이미 확보한 140억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주거여건 개선을 위한 관촌·오수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을 비롯, 전통시장 맛잇길 특화거리 조성사업과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아이 낳고 살기 좋은 임실의 명성을 더욱 굳건히 할 예정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추진

저소득 청년 대상 1년간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

남원시는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1년간 월 최대 20만원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만19~34세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고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한다.

소득·재산요건은 △청년가구(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 상 가족)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을 포함한 원가구(청년+부모)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다.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건축과(☎063-620-6587)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으며 신청 희망자는 온라인(www.bokjiro.go.kr)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남원=김기두기자

오늘부터 내달 3일까지 '남원 춘향인재장학생' 모집

남원 인재양성을 위하여 각종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재단법인 춘향장학재단(이사장 최경식)에서 지역의 미래 희망 사업으로 '2023년 춘향인재장학생'을 27일부터 3월 3일까지 모집한다.

지역 출신의 영재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지역발전을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춘향인재장학생 선발은 지난 1995년 춘향장학재단 설립 때부터 현재까지 매년 시행되고 있으며, 2022년까지 2,204명의 장학생들에게 29억1,4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이번 춘향인재장학생은 우수·보람·희망·특기 장학생 부문으로 총 143여명을 선발하여 총 2억5,600만원으로, 우수장학생은 200~500만원, 보람과 희망장학생은 1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통

순창소방서, 일반인 심폐소생 경연 참가팀 모집

순창소방서(서장 강동일)는 4월 21일 전북소방본부에서 주최하는 제 12회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참가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경연은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을 8분 이내의 짧은 연극 형태로 표현하는 방식이다. 이번 대회는 일반시민의 심폐소생술 시행률을 향상시키고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참가 자격은 만 10세 이상으로 소방서장 추천으로 선발된 일반 군민으로 선수 선발 제외 대상은 △역대 전국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참가 입상 경력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응급의료종사자 △간호학과·응급구조학과·한의학과 등 의료인 양성학과 재학생 △소방공무원·의용소방대 설치법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등이다.

분야별 1위 팀은 전라북도 대표로 6월 22일 예정된 소방청 주관 전국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참가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순창소방서(063-650-924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2022년 노인복지관 평가 'A등급'

임실군이 효심 행정의 일환으로 위탁·운영하는 노인복지관이 어르신들을 참 잘 모시는 기관으로 인정받았다.

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평가한 2022년 노인복지관 평가에서 임실군이 위탁하고 사회복지법인 삼동회에서 운영하는 임실군노인종합복지관·북부권노인복지관이 2회 연속 A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서울과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211개의 노인복지관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의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 운영,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지역사회 관계, 시설운영 전반 등 총 6개 영역에 대해 평가했다.

임실군노인종합복지관과 임실군북부권노인복지관은 모든 평가 항목에서 A등급을 달성했다.

평가 결과 임실군노인종합복지관은 2019년 8월 건물을 신축하여 이용 어르신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고, 직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현장 평가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임실군북부권노인복지관은 농촌지역 특성에 맞게 지역자원을 활용한 재가복지사업을 통해 돌봄 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갑수 관장은 "임실군청, 삼동회를 비롯한 지역사회 여러 유관기관과 복지관을 이용해주시는 어르신들 덕분에 좋은 평가 결과를 받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복지관 운영에 있어 어르신들이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더욱 신경 쓰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심 민 군수는 "노인복지관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후속 세대의 모범이 되는 선배 시민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각별히 신경쓸 것"이라며 "고령의 어르신들이 많은 만큼 앞으로도 어르신들을 위한 효심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